



## 기초 공연예술 창작 역량 강화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초예술 생태계 구축한다

- 1월 30일(금), 기획예산처·문화체육관광부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 위한 국립예술단체 현장 간담회’ 개최
- 문화예술 분야 지원방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문화체육관광부가 묻고 예술단체가 답한다.
-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현장 의견 적극 검토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30일(금) 13시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립예술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연예술 창작·유통 활성화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 <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6.1.30.(금) 13시~15시 / 서울 예술의전당 N스튜디오 회의실
- (참석자) 정부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등  
국립예술단체 강수진 단장(국립발레단), 김철 사무국장(국립현대무용단), 류상록 사무국장(서울예술단), 민인기 단장(국립합창단), 박정희 단장(국립극단), 박재현 경영관리팀장(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신용선 국장(국립오페라단)

이번 간담회는 기초 공연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공연예술 역량 강화를 통한 국립예술단체 대표 레퍼토리 확대, 우수작품 유통·향유 활성화 등 기초 공연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과제 등을 중심으로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기초 공연예술은 단기간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창·제작 역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국립예술단체의

대표 레퍼토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공공 문화자산인 만큼, 유통 및 재창작 확대를 통해 우수한 작품이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예술단체장들도 창작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제작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국립예술단체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예술적 성과가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게 향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공연 제작 여건 개선, 예술인력에 대한 지원, 공연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방안 등 기초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창·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용신 예술정책관은 “기초 공연예술의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지속적으로 작품이 만들어지고 관객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유통, 향유가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현장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등 주요 공연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공연시설은 예술가의 창작과 관객의 경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공연시설의 질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하였다.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 공연예술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초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예산과	책임자	과장	정성원 (044-214-2550)
		담당자	서기관	이국희 (davebona@korea.kr)
			주무관	고동성 (klkj022@korea.kr)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책임자	과장	강은영 (044-203-2731)
		담당자	사무관	안소영 (ansso27@korea.kr)

